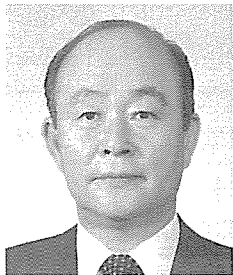


아인슈타인 등 노벨상 수상자만 20명 배출한 스위스연방 취리히공과대학

아인슈타인·뢴트겐 등 노벨상 수상자만 20명이나 배출한 세계적 명문대학인 스위스연방 취리히공과대학. 이 대학은 가난하고 자원이 빈곤한 작은 나라 스위스를 1인당 GDP 3만5천달러로 미국·일본보다 앞선 부자나라를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854년 설립된 이 대학은 19개 학과에 재학생이 1만천7백여명이며 해마다 4백50여명의 박사학위 수여자를 배출하고 있다. 스위스의 자랑 취리히공과대학은 오늘의 스위스를 이룩한 과학기술의 상징이다.



崔鍾浣

〈(주)인터세크 회장/전 과학기술처 장관〉

나는 스위스를 방문하여 연방 취리히공과대학 정문 앞에 섰을 때, 그 학교가 스위스로 하여금 근대산업국가 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곳의 졸업생이거나 교수였던 인사중에 20명의 노벨수상자가 배출되었다는 업적과 전통의 무게를 느끼면서 숙연한 마음가짐이 되었다.

스위스는 약 4만1천km²로 된 국토에 7백만명이 살고 있는 작은 나라다. 국토의 3분의 2가 눈, 얼음, 바위, 자갈과 산림으로 덮인 산악지대로 되어 있으며, 경작이 가능한 땅은 전체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알프스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수

자원 외에는 이렇다 할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작은 나라 스위스는 26개의 칸톤으로 불리우는 강력한 지방자치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의 구성도 다양하여 독일어를 쓰는 비율이 63.6%, 불어 19.2%, 이태리어 7.6%, 로만어 0.6% 그리고 기타 언어로 되어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나라다.

1백45년 전통 ... 과학기술의 상징

그러나 스위스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계정상급의 국가로 분류된다. 우선 경제면을 살펴보면 인구 1인당 GDP가 미화 3만5천3백96달러(1997년 통계)로써 미국이나 일본을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도 앞서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의 배후로서 취리히공과대학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스위스에는 취리히공과대학 외에 긴 역사를 가진 바이젤대학(1460년 설립), 로산느대학(1537년 설립), 제네바대학(1559년 설립) 등 10개의 대학이 있다. 이들 대학은 모

두 주립대학으로 칸톤의 주관하에 있다. 그리고 이들 대학들은 중세기의 유럽 대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주요 교수과목은 신학, 법률, 의학, 인문학, 경제학 그리고 순수과학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도 공학은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취리히공과대학은 1848년 연방헌법 개정에 의하여, 타 주립대학과 달리 연방정부에 의한 대학으로서 1854년에 설립되었다. 산업화 사회를 대비한 연방정부의 특별한 조치였다. 이 대학의 설립시기가 프랑스의 에콜 폴리테크니-크 등에 비교하면 뒤지고 있으나 독일의 공과대학으로 알려진 ETH 등이 주로 1870년대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에서 작은 나라 스위스의 돌출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학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것은, 1887년에 설립을 보게되는, 현재의 동경대학교 공학부의 전신인 공부대학교의 교수요원으로 초빙되어 온 영국의 글래스고공과대학의 젊은 헨리 다이아교사가, 이상적인 공과대학을 만들고자 취리히공과대학을 토대로 조직과 교수과목을 편성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설립 후 얼마 안된 1880년대에 이 대학은 그 명성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사실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독일 뮌헨의 김나지움을 버리고 취리히공과대학에서 학생으로 공부한 것이다. 이것은 이 대학이 이론과학 분야에서 유명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대학의 감독기관으로서 연방공과대학 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내무부에 속해 있다. 참고로 스

